제19회 달마배 스노보드대회 성료…“꿈나무 응원”

2월 4일, 횡성 웰리힐리파크서 개최

유망주 선수에 훈련 지원금 수여

호산 스님 “선수 위해 기도” 격려

횡성=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19회 달마오픈 챔피언십 스노보드대회(집행위원장 호산 스님)가 2월 4일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대회에는 최연소 8세부터 다양한 연령층에서 80여 명이 동참, 겨울 스포츠를 즐기며 축제의 장을 펼쳤다.

(사)이웃을돕는사람들과 체육인불자연합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이 후원하는 달마오픈 챔피언십 스노보드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장수 스노보드대회다. 스포츠를 통한 불교문화를 알리고 스노보드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 호산 스님(봉선사 주지)의 주도로 200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달마배 출신으로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이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한 이채운 선수가 대회장에 참석, 후배들을 응원해 눈길을 끌었다. 80여 명 중 예선을 거쳐 25명 선수가 본선에 진출했다. 선수들은 본선 진출자답게 고난도 점프와 회전 등 실력을 선보여 감탄을 자아냈다.

대회 후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이수오 군과 최서우 양이 초중등부, 이광기 씨와 권선우 씨가 고등대학생일반부 1위의 영광을 안았다. 달마오픈 챔피언십 집행위원장 호산 스님은 “스노보드 꿈나무들이 달마오픈을 통해 선배들과 인연을 맺고, 응원과 후원 속에서 실력을 늘려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길 바란다”면서 “불교계와 스님들이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겠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달마오픈 챔피언십 스노보드대회 집행위원장 호산 스님은 대회 우수자들을 시상하고 스노보드 꿈나무를 응원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고난도 점프와 회전실력을 선보여 감탄을 자아냈다.

시상식에서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먼저 오랜 시간 동안 달마배 스노보드대회를 이끌어온 호산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달마배 출신 선수들이 각종 스노보드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있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이라면서 “더 큰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계종도 더욱 관심 갖겠다”고 약속했다. 이무헌 대한스키협회 부회장도 달마배 스노보드대회에 대해 “유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을 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20여 년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대회를 이끌고 있는 호산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달마배 스노보드대회가 유소년 스노보드 유망주 발굴과 전법활동이 가장 큰 목적인 만큼, 이날 시상식에서는 초중등부 유망주 선수 2명에게 각각 훈련 지원금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훈련 지원금 수여자로 선정된 이수오 군(13)은 “앞으로 지도자인 아버지의 지도 아래 열심히 훈련해 형처럼 국가대표도 되고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수오 군의 형 이지오 군은 국가대표로, 2023 스위스 내셔널 주니어 챔피언십 우승자다.

이날 대회에서는 총상금 2700만원과 2000만원 상당의 협찬품이 참가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갔다. 올해 처음 참가한 일본 청소년 선수들에게 참가상이 주어졌으며 아차상과 최고령(62세) 최연소(8세) 특별상 등 다양한 시상이 이어졌다.

특별 동참한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채운 선수는 “호산 스님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달마배 스노보드 출전 이후 기량을 높여 세계랭킹 1위에도 오를 수 있었다”면서 “대회 성장과 함께 선수들도 기량을 높여 한국이 스노보드 강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시상식에 앞서 경기소년소녀합창단과 상월비보이단 이에이트의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대행선연구원, 불교학 진흥사업 추진

묘공학술상·장학생 공모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이 2024년 불교 학술 진흥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제7회 묘공학술상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모가 진행된다. 공모분야는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다. 응모 자격은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다.

제6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도 진행된다. 공모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 작성을 계획 중인 대학원 재학생이면 응모 가능하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한마음연구〉에 수록될 원고도 모집한다. 투고 자격은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 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다. 031-470-3277 신중일 기자

세월호10주기위, 진우스님에 명예위원장 요청

위원회 공동대표단 예방

7대 종교 수장에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세월호 사고 10주년을 맞아 구성된 세월호10주기위원회(운영위원장 김종기)로부터 명예위원장직을 요청받았다.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행된 세월호10주기위원회 공동대표단의 예방에서다. 예방자는 김종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5명, 4·16재단 김광준 이사장, 4·16연대 공동대표 박승렬 목사와 김선우 사무처장이다. 자리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스님과 부위원장 고금 스님이 배석했다.


세월호10주기위원회가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명예위원장직을 요청했다.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먼저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과 함께 연대해온 조계종과 사노위에 감사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스님들의 기도가 많은 위로가 됐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큰 버팀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세월호10주기위원회는 앞으로의 10년을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아직도 사고 예방과 사후 처리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진상규명과 사후 처리에 대한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왔다. 유가족들이 희망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박승렬 목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교계가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자비를 말씀하는 조계종에 감사하다”며 진우 스님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 10주년을 맞아 더 이상 참사가 정쟁화되지 않도록 종교계가 나서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세월호10주기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7대 종교 수장들을 모시고 싶다”며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공동회장인 진우 스님을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곧 열릴 KCRP 회의에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운영위원장은 세월호10주기위원회가 추진할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기억과 추모의 공간 재정비 및 추모 △생명존중과 안전사회를 위한 연대 활동 등 주요 활동사업에 불교계가 지금과 같은 지원을 해주길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사회부를 통해 연락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민우 수습기자

연예인전법단, 서울 종로 전법도량 개소

2월 6일 개소식 전법 진력 다짐

진미령 등 연예인 30여 명 참석

조계종 연예인전법단(단장 우봉 스님, 조계종 기획실장)이 서울 조계사 인근에 종로사무소를 열고 부처님 법 전하는데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연예인전법단은 2월 6일 서울 조계사 맞은편 건물에서 종로사무소 개소식을 봉행했다.

개소식에서 진미령 가수분과위 부회장은 연예인전법단을 대표해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연예인전법단은 △종단 행사 참여 △불교행사 기획 △승보공양 △연예인전법단 연말 시상식 △스님 건강관리 힐링캠프 △불자연예인 인재양성 프로젝트 개발 △장학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지지와 관심을 당부한 진미령 부회장은 “종로사무소가 부처님 법 전하는 연예인전법도량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총무원 사업부장 각운 스님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부처님 법 만난 것이 큰 행복인만큼 이를 나누기 위해 연예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전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교원 신도국장 자경 스님은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주는 연예인들을 보니 불교 미래가 밝다”면서 “종로 사무실을 사랑방 삼아 적극적으로 활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로사무소 개소식에 모인 30여명의 연예인들은 전법에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연예인전법단 자문위원장이기도 한 장정화 대불청 중앙회장도 “연예인들은 움직이는 자체가 보시”라면서 “연예인 불자들과 포교현장에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종로사무소는 조계사 맞은편(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8-1)에 위치했다.

임은호 기자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2024년 대한불교조계종 인가 불교대학 입학 안내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포교원 인가를 받은 전국 사찰의 불교대학을 통해 신도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시어 수승한 불자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불교대학을 안내 해드리오니 신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부처님법 전합시다

서울
국제선센터불교대학 02-2650-2209
극락사불교대학 02-434-1717
금강선원불교대학 02-445-8484
길상사불교대학 02-3672-0036
대성사불교대학 02-583-1475
디지털불교대학 070-8680-9288
법련불교대학 02-733-5322
봉은불교대학 02-3218-4821
불광불교대학 02-417-2551
삼보불교대학 02-352-6406
수국사불교대학 02-356-2001
약사사불교대학 02-2662-2551
우담바라불교대학 02-3411-8104
조계사불교대학 02-768-8600
진관사불교대학 02-359-8410
호압사불교대학 02-803-4779
화계불교대학 02-997-6469

경기
관음사수자타불교대학 031-533-0741
금강불교대학 02-898-8200
김포불교대학 031-980-7753
묘적사불교대학 031-576-0784
법륜사불교대학 031-332-5703
보광사불교대학 031-948-7701
보문선원불교대학 031-401-2540
보현선원 보현불교대학 031-252-1080
봉국사불교대학 031-755-0329
봉녕사심우불교대학 031-256-4127
봉선사불교대학 031-529-1950
봉영사불교대학 031-571-0555
불국산 연화불교대학 031-840-0388
소림사불교대학 032-612-5900
안양불교대학 031-444-5935
용주사불교대학 031-221-2324
031-234-0040
정심사불교문화대학 031-791-7732
정토사불교대학 031-723-9797
청계사불교대학 031-426-2348
회암사불교대학 031-866-0355

인천
경인불교대학 032-427-8400
나란다불교대학 032-434-9930
영응사선재불교대학 032-567-5277
인천명상불교대학 032-577-5108
전등사불교대학 032-937-0025

강원
강릉불교대학 033-643-2985
용연불교대학 033-647-1234
동해불교대학 033-534-7661
신흥사불교대학 033-638-4807
033-635-0106
원주불교대학 033-746-0248
법웅사불교대학 033-742-2701
월인불교대학 033-436-6611
청평사불교대학 033-244-1095

충남
각원사불교대학 041-561-3545
개심사불교대학 041-688-2256
내포불교대학 041-662-7717
마곡사불교대학 041-841-6221
보문사불교대학 041-545-6531
서광불교대학 041-664-2002
세원사불교대학 041-934-1434
수덕사불교대학 041-330-7789
영랑사불교대학 041-353-8053
영평사불교대학 044-854-1854

대전
대전불교대학 042-222-3315
백제불교문화대학 042-471-8214
042-471-5547
수덕사대전불교대학 042-222-1159
통도사대전불교대학 042-531-1332

충북
법주사불교대학 043-543-3615
석종사불교대학 043-854-4505
중원불교대학 043-745-7788
청수사보현불교대학 043-218-9995
청주불교문화대학 043-256-6254
충북불교대학 043-273-2159

부산
고심정사불교대학 051-464-8450
내원불교대학 051-242-0691
로터스불교대학 051-853-8539
마에뜨리아불교대학 051-271-2774
발원사어셉불교대학 051-405-2326
범어사금정불교대학 051-866-7277
선암사나란다불교대학 051-803-7573
여래사불교대학 051-466-4080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 051-851-3355
홍법불교대학 051-508-0345

울산
백양사불교대학 052-243-8712
울산불교교육대학 052-266-3318
정토불교대학 052-258-9944
지장정사불교대학 052-256-3552
황룡사불교대학 052-211-1949

대구
경북불교대학 053-792-1353
관오불교대학 053-471-6640
대구불광불교대학 053-656-6766
대구불교대학 053-256-3725
마하야나불교대학 053-629-0408
법왕불교대학 053-766-3747
성화사불교대학 053-623-8334
용연사불교대학 053-616-8847
한국불교대학 053-474-8228

경북
구미불교대학 054-453-0571
금강불교대학 054-632-3767
기림사불교대학 054-744-2292
김천불교대학 054-429-1700~2
남화사불교대학 054-452-6568
대승불교대학 053-802-4080
대원불교대학 054-858-2630
문경불교대학 054-552-9336
보경사불교대학 054-262-1117
불국사불교대학 054-746-2211
상주불교대학 054-535-2881
아난다불교대학 054-247-7207
예천불교대학 054-654-0682
은해사불교대학 054-335-3318
의성불교대학 054-833-2938
지장사불교대학 054-437-2589
축서사불교대학 054-672-7578,9
포항불교대학 054-247-4688

경남
경남불교대학 055-543-1795
관룡사불교대학 055-521-1747
구룡불교대학 055-294-3279
금강사불교대학 055-636-8634
대광불교대학 055-545-9595
도성암불교대학 055-533-2073
동림불교대학 055-325-4008
밀양불교대학 055-354-4464
봉림불교대학 055-237-2266
비사벌불교대학 055-533-2295
성주사불교대학 055-262-0108
쌍계사진감불교대학 055-883-1901~2
안국사불교대학 055-2551080
영축불교대학 055-242-8393
율하선원불교대학 055-321-0772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055-275-3222
진주불교대학 055-759-1080
통도사불교대학 055-382-7182
통도사전법회관불교대학 055-387-0108
해인사불교문화대학 055-934-3110
해인사함양불교대학 055-963-2471

전남
강진불교대학 061-434-0202
목포불교대학 061-244-1489
불일불교대학 061-755-0107
영암불교대학 061-473-5122
완도불교문화대학 061-554-2634
해남불교대학 061-534-5502
061-534-3355
화엄사선재불교대학 061-783-7600

광주
고불총림 광주 관음사불교대학 062-223-7666
광주불교문화대학 062-228-9098
062-234-6601
무각사불교대학 062-383-0108
선덕사무등불교대학 062-263-4660

전북
군산불교대학 063-462-5366
남원불교대학 070-8881-0108
선운사불교대학 063-561-1422
수현불교대학 063-224-4441
이리불교대학 063-842-6652
정읍불교대학 063-536-8741
참좋은우리절불교대학 063-236-6633
화엄불교대학 063-277-3497

제주
법화사불교상담대학 064-738-5225
신제주불교대학 064-746-0108
제주관음사불교대학 064-724-6830

※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포교 → 신도등록 및 교육(불교대학주소록) 에서도 검색이 가능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